



통권 16호

후원회소식

발행일/1993. 2. 12.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02) 763-2606, 745-5604

시 학 입 문

— 시는 이렇게 써야 할 걸세

어느 양심수의 겨우살이 (1)

김명식*

1977년 전주 감옥에서 만난 분일세
북녘땅 소식이야 손가락으로 글을 지어
서로 나누고
어느 친지가 면회왔다 가며
들여보내준 식은 음식을 받아들고
간수의 눈을 피해 건내주던
구정이 끝난 이 맘때 쯤 눈이 내렸고
한파가 몰려와 담안에 듬뿍 기승부릴 때
손귀발 비비라고 동상방지 따슨 정을
처음으로 건내주셨지
4면벽 감시망을 순간 순간 피하면서
북녘동포 통일염원도 가르쳐주셨지

이 지경 진보적 지식인들
북녘의 형제들을 간첩이라 외면할 즈음
해가 바뀌고 혼자만 석방되는 어느 겨울날
어머님이 사다주신 텸내복 한장
슬며시 선생님께 건내주고선
잊혀 살다가 아, 잊혀살다가

1991년 대전감옥에서 다시 몸 부려 있을 때였지
민족전쟁 화약냄새 다 가시기도 전
그러니까 1955년에 불잡혀
이곳에 끌려 왔다 하시더군
고혈압으로 몹시도 고생하고 계시더군

이 지경 진보적 지식인들
이선실을 간첩인줄 모르고
만났다고 내 동포 내 형제 고개돌려 외면할 이즈음
지금도 그때 건내받은 텸내복을 간직하고 계시다는

종신형 징역 받아놓고
이제야 겨우 독방살리 38년을 때웠다는
평양 선교리 출신
홍문거 선생님

중부이남 지역에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데
마감뉴스 기상대 발표는 중부이남 지역에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데 대전교도소에도

(1993년 음력 1월 3일)

* 김명식 : 시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연구원, 「통일문화통일예술」 편집위원.
시집으로 「우리들의 봄은」, 「제국의 굴레」, 「낫과 호미」, 「한락산」, 「평화의 땅 통일의 땅」외
다수의 시집이 있음.

■ 생각해 봅시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

조 무 하(양심수후원회 부회장)

나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혐의로 3달간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새삼 사건의 시비를 가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남편 장기표씨가 30여년 민주화운동을 해오는 동안 평범한 주부로서는 가보기 어려운 경찰서, 교도소, 남영동대공분실 안기부 등을 찾아다니며 구속된 가족의 인권을 항의하다 보니 나자신 직접 구속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평소 면회를 다니면서, 재판을 방청하면서 궁금 하던 '그안' 구경을 하게 되어 갑갑증이 해소되었단다고 할까

그러나 어찌 석달간의 짧은 기간에서 무얼 보았다, 알았다, 또는 느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면구스러울 뿐이다. 그래도 항상 밖에서 옥바라지에 어려움을 하소연하다가 구치소 생활을 잠깐하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수십년씩 생활하신 장기 수 분들의 고통이었다. 법적 제제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구속이라는 것을 절실히 체험한 것이다.

구속자나 그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 기간」도 구속전과 후의 생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짧건 길건 간에 한 개인의 「생의 일부」, 그것은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가족과 친지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관계, 친지관계가 방해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물론 구속적부심리, 보석, 집행유예, 특별접견 등 모든 조항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라는 불문율이 불어 본인은 물론이지만 사법부의 판사, 검사, 변호인까지도 경직되어 버리는 것 같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무조건 기소되

게 되어 있고, 무조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이의는 기각되어야 하는 등 요지부동의 사항들이 철벽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가정이 파괴되어도 할말이 없다. 가족과의 접견도 제한되어있고 독거수용, 독보 등등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가혹행위나 강압수사에 대해선 아예 이야기할 능력도 없다.

나는 안기부에서 25일 동안 조사를 받을 동안 가장 괴로운 것이 10살 12살짜리 두 어린애들이 부모가 모두 구속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었다. 주위의 다른 어떤 사람의 설명보다도 엄마나 아버지의 직접적인 설명이 가장 아이들을 안심케 하는 방법이고, 또한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고, 시기를 놓치면 영영 상처로 남는 아픔이 될 것이라는 걱정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안기부에서는 변호인의 접견도 막는 판이니 감히 엄두를 못내고 구치소로 송치된 뒤 구치소측에 특별면회를 요청했다. 아이들은 안정된 분위기에서 만나 안심시키고 싶었다. 처음 요청때는 이유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묵살당했다. 겸치가 끝날쯤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어렵다고 했다. 바로 옆방의 재소자는 내가 이렇게 절차 밟아 요청하는 동안 두 번이나 특별접견을 했다.

이렇게 작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이라면 무조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국보법 자체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법의 적절한 운용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별한 힘이나 애를 쓰지 않아도 피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 감옥에서 온 소식—양심수들의 새해인사

님의 친정한 뜻
님의 뜨거운 마음
님의 지상한 사랑
이제 그을라에 자리



새해를 빛아
- 1월 19일

회원 여러분의 평화와 건강과 모든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항상 념려하여 주시는 덕택으로 저희는 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유새해 정월 십이일
대전에서 고성화

••••••••••••

새해에는 희망, 기쁨, 환희 — 이런 것들이 어울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작년 한 해도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에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93. 1. 1.

순천에서 전기석

••••••••••••

보내주신 편지 반갑게 받아 보았습니다.
아는 적도, 만나 본 적도 없는데도 이곳의 오랜

세월을 염려 하여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십년을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항상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하루 속히 분단이 치유되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새해에도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과 아울러 가정과 이웃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3년 1월 19일

광주에서 이공순

••••••••••••

문민정권이 랍시고 들어서서도 장기수 선생님의 석방문제가 멀게 느껴지니 슬프고도 무척 괴롭습니다. 저야 아직 젊으니 몇년 더 살면서, 진보시대의 무기를 갈고 닦을 수도 있을 터이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수탈의 시대, 억압의

시대, 불의의 시대에 언제나 바뀌지 않고 끝 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다짐해 듭니다.

얻을 것은 해방이요, 잃을 것은 족쇄인 시대에,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부디 선생님 건강하시고, 민가협—양심수 후원회 사업이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빨리 선생님을 대명천지에 뵙고 싶습니다.
장기수 선생님의 석방을 간절히 간절히 염원하며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93. 1. 10.

진주에서 장민성

••••••••••••••

희망을 가꾸어 가는 새해
대선에서 패하고서 새해를 맞는 사람들 마음이 조금은 착잡하기도 하리라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민중을 신뢰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교훈을 찾고 민중과 함께 일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에서 이룬 민주세력의 단합과 도덕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분단의식 극복과 지역 감정 극복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늘 같은 민중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 손맞잡고 나간다면 새해 새희망과 궁극적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희망찬 새해' 보다는 '희망을 가꾸어 가는 새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복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93년 1월 4일

장흥에서 손성표

근하신년

년하장 감사합니다. 2월 27일 새해 아침에 만납시다.

1993년 새해 아침

안동에서 김병주

••••••••••••••

刻意尙行

새해가 겨울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까닭은 낡은 것들이 겨울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낡은 것으로부터의 결별이 새로움의 한 조건이고 보면 칼날 같은 추위가 낡은 것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겨울의 한복판에 정월 초하루가 자리잡고 있는 까닭을 알겠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저는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잊으며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정성어린 옥바라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가협의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통일염원 사십구년 정월 삼일

대전에서 유원호

••••••••••••••

지난 해는 어느 금요일까지 설레이던 마음이 토요일 아침에 꼭두각시 탈춤 추는 꼴을 보게 되여 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

레바퀴가 꺼꾸로 돈 레는 없음으로 언젠가는
이 땅에도 꽃은 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감을 확신하
고 있습니다. 맹취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 기여코 봄은 올 것입니다.

굳은 악수로 끝맺습니다.

93년 1월 7일

안동에서 이성우

저는 따뜻한 남쪽 땅 제주에서 '호강스런'
겨울장역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껏 기온이
영하로 떨려진 날이 전혀 없을 정도이니 육
지에서 추위로 고생하고 있을 다른 여러 동
지들,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가히 호강이라
할 만 하지요. 날씨만 맑으면 햇살이 그렇게
파스할 수가 없고 빠알갛게 만발하고 있는
동백꽃들은 잠시라도 겨울임을 잊게 만들지
요. 정치범 동료가 아무도 없어 외로움도 있
기 했지만 이제는 견딜만해졌습니다.

대구에서 나종인 선생님으로부터 일요일마
다 바둑 배우던 생각이 나는군요. '사장님'
출신임에도 대학동문의 인연에다 그 분의 원
만한 성품에 끌려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지
금은 대전에 계시겠지요. 같은 사동에 있던
김정묵, 김장호, 박수관, 정영 선생님들도
기억나는군요.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만 한
없이 밀려드는 비극의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기 얼마전에 오형식선생
님을 비롯한 몇 분이 대전에서 옮겨오셨지
요. 특히나 나 선생님 방으로 새 주인이 되
어 들어오신 오 선생님, 같은 사동에 있던
스물 세 살의 학생이 태어나기 며칠전부터

이미 징역살이를 시작하셨음에도, 얼굴에는
너그럽고 호쾌한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지요.

요즘 들어서 비로서, 오랜 감옥생활의 무
게에 짓눌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
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적 우연
으로서 내게 던져지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나의 현실로 되고 있다면 흔쾌히 '나의 인
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
고 있지요. 젊은 혈기에서 나오는 주관적 의
지와 기대, 희망만으로 인생이 펼쳐지는게
아님을 깨닫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슴속에 꿈과 야심을 품고 있다면 모순이겠
지요? 하지만 인생에 대한 그런 모순된 자세
가 또한 시대의 현실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던 자유, 그리던 가족과의 재회가 이루
어질 수 있는 올 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직접 뵙고 인사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93년 1월 9일

제주에서 진현

밝음을 향해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셨고요?
어둠을 싫어하고 밝음을 향하고 따르는 것
이 동식물계에 있어서는 일반적 성향이고 삶
의 본능이라고들 해요. 한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언제 한번 어진
적이 있었던가요? 한번도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마치나 자연마저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뚱단지 같은 생각에 잠길 때
가 있을 법도 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理性
의 채찍질은 現實狀況을 直視케 합니다. 언
제나, 오늘을 사는 것은 허접쓰레기 같이 내
팽개쳐도 좋을 어제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
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만은 어제의 所重함을
오늘에 이어 구차한 삶이 되지 않도록 되새
김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아가렵니다.

저의 단상의 파편들을 갖춤도 없는 채 몇
자 적어 보내드린 것을 칭찬해 주셨드군요.
선생님 앞에 멋적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주신 年賀狀 고마웠습니다. 함께 수고하시
는 兄弟姊妹님들께 새해 祝福드리면서 저의
고마움도 말씀드립니다. 내내 안녕하세요.

93. 1. 5. 화 小寒

광주에서 梁喜喆

오직 한길 참된 이길

뜨겁게 더욱 힘차게 —

보내주신 영치금 잘 받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다른 동지들과 뜻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의 안과 밖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리라 믿
습니다.

계유년 입춘날

진주에서 이수호

이번 새해는 연말 대선 충격이 너무 커서
멍하니 맞았습니다. 이제야 새해 계획 짬다
고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새옹지마, 전화위
복 같은 말들이 있죠. 이 말들은 단지 위안
의 뜻만이 아니라 세상사의 합법칙성을 반영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체의 의지가 있을 때
만, 희망없는 역사란 없는 법입니다. 어쨌든
대선은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파악은 완벽한 승리를 위한 필수 요건아닙니까.
93년은 아주 신중하고 비장하게 출발합
니다. 패배속에서 교훈을 얻는 역사를 반복
하지 않고 오로지 승리속에서 참진리를얻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분투해야 할 한
해입니다.

93년 1월 5일

목포에서 하태경

2월 산행모임 안내

언제 : 93. 2. 21(일) 이른 10시 정각

어디 : 북한산

모이는곳 : 우이동 「그린파크」 정문 앞

버스노선 : 6, 6-1, 8, 23, 28번

준비물 : 각자 도시락, 회비 3,000원

눈이 올것에 대비 아이젠,

털장갑 꼭 가지고 오십시오.

편지를 보냅시다.

후원회원 여러분!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서 홀로 외로이 생활하고 계시는 장기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생님들께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편지 한 장은 따스한 입김처럼 수인들의 언 몸을 감쌀 것입니다.

■ 김용수 선생님(대전 3817) 1931. 9. 30일생(63세) 1967. 구속, 27년 복역

경북 월성에서 출생. 1950년 서울에서 중학교 다니다 의용군 입대, 군생활중 노동당 입당하고 제대하여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 졸업. 자강도 강계 축산대학 철학교수 역임. 65년 당에 소환되어 업무수행 중 67년 체포 15년 선고 받았으나, 복역중 '붉은 별' 사건으로 10년 추가 받았음. 심장병과 백내장으로 고생하고 부인과 자녀는 북녘(강계)에 있어 돌볼 사람이 없음.

■ 오형식 선생님(대구 3565) 1930. 4. 5일생(64세) 1969. 6. 12. 구속, 무기형, 25년 복역

서울출생. 경복중학교 재학중 50년 의용군 입대 전투에 참가함. 제대 후 양곡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김일성 종합대학 화학부 수료. 원산농업대학 상급교원(조교수)으로 일하던 중 당에 소환-69년 서울로 내려와 가족과 마나려다가 체포 무기형 받게 됨.

온순한 성격, 낙천적이면서도 정치적 신념엔 어떠한 압력에도 굽힘없이 자신의 양심을 지켜내고 있음. 전공인 화학말고도 수지침, 오향침 등 동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음. 가족은 북녘에 있고 서울에 동생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박완규 선생님(대전 3624) 1930. 4. 10일생(64세) 1967. 9. 9. 구속, 무기형, 27년 복역

충북청원 출생. 청주상고 졸업 50년 인민군 서울입성 때 사회안전부에 들어가 평안도에서 일하다 인민군에 입대 전투참가함. 제대 후 평남 대동군 상업위통부문 간부로 활동하다가 평양상업대학 진학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영 평양농장 간부로 활약함. 67년 당에 소환 고향에 왔다가 체포 무기형 받음. 비전향 장기수로 조용한 성격이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심. 부인과 자녀는 평양에 있고 고향엔 누이동생이 있으나 연락이 없음.

주소 / 대전교도소: 305-251,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

대구교도소: 711-830, 경북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147

■ 알려드립니다.

■ 1월 1일 / 새해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만남의 집<구로동, 봉천동>, 탕제원 그외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께 새해 인사드렸습니다.

■ 1월 4일 / 월간 '말' 1월호 장기수 선생님 다섯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잡지를 빠짐없이 보내주시는 '말'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1월 5일 / 구속학생협의회 새해 첫모임이 있었습니다.

최남규 선생님께서 방문해 주셨고, 임수경 대표 인사말도 있었습니다.

■ 1월 8일 / 워싱턴 수도교회와 시카고 신지혜님께서 격려 편지와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회답을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1월 9일 / 양심수 후원회 분반기획 패 세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후원회 간사 송록희님 집에서 김승규, 이정규, 임은영, 김언경, 나명주님들이 산행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모아냈습니다.

■ 1월 10일 / 권낙기 선생님의 어머님 칠순 잔치와 따님 디정야기의 백일잔치가 있었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오래 오래 사시며, 통일세상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2일 / 민가협 8차 총회 준비위원회 첫모임이 있었습니다.

총준위원 확정, 회의 원칙, 모임일정과 총준위원장은 호선했습니다.

■ 1월 14일 / 93년 후원회 운영위원회 첫모임이 있었습니다.

후원회사업 평가, 양심수석방문제, 봉천동 「만남의 집」 집 마련 지원금문제 출소 장기수(지방 양로원) 찾아뵙는일, 1월 산행, 1월 영치금 보내는 일들을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냈습니다.

■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권두영(전 민중당고문) 선생님의 자결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양병원 빈소에 문상다녀왔습니다.

■ 박종철 열사 6주기 추모모임 및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회가 기독교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민가협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1월 15일 / 소식지 '15호'를 발송했습니다.

■ 1월 16일 / 새해 첫 민주가족의 날 모임이 있었습니다.

- 임수경, 문규현 신부 석방 환영대회 및 양심수 석방 결의대회가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민가협, 전국연합 등 여러단체 주관주최로 열렸습니다.
민가협 회원 시민, 학생 등 2500여명이 함께 하는 환영과 석방 수배해제 요구를 모아냈습니다.
- 1월 17~18일 / 애국지사 고 박판수 선생님 1주기 추도모임, 추도행사가 양산 솔밭 공원묘지와 부산대학에서 있었습니다.
부산 민가협과 부산연합이 주관한 이 모임에는 서울, 부산, 전주, 대구, 창령, 김해 여러 곳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많은 분이 오셔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 부산 정화양로원에 계신 출소 장기수 강동근선생님을 뵙고 인사와 위로 뜻을 전해드렸습니다.
- 1월 19일 / 양심수 후원회 7~12월 사이의 사업일반과 재정감사를 받았습니다.
후원회 감사이신 진관 스님께서 꼼꼼히 감사해 주셨습니다.
- 1월 20일 / 민가협 총준위 두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가협 양심수 후원회 사업 평가가 있었습니다.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고광석 공동의장 등이 민가협을 방문하여 93년 연대사업 부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1월 21일 / 황인철 변호사 빈소에 문상 다녀왔습니다.
- 호주 「범투본」에서 양심수 20명에 전해 달라고 1,026,273원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식지 편집모임이 있었습니다.
- 1월 22일 / 황인철 변호사 장례미사가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집전으로 있었습니다.
인권운동의 선구자여 고이 잠드소서
- 1월 24일 / 음성 '꽃동네'에 계신 유한옥, 김광삼 선생님을 찾아 뵙고 위로의 뜻 전해드렸습니다.
유한옥 선생님은 오랜 육고의 후유증으로 몸 절반이 움직임 장애가 있고, 김광삼 선생님은 페에 종양, 거대 임파선 등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모시는 일이 급한 상태입니다.
- 1월 25일 / 연세대 적십자 동아리 패 박정건, 혀영민(91 학번)님들 후원회 방문 후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1월 27일 / 민가협 총준위 세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양심수 석방을 위한 농성 문제, 양심수 석방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총력주간 행사에 대한 토의와 구학협 사업 평가가 있었습니다.

- 1월 28일 / 워싱턴 수도교회와 시카고 신지혜님 격려 편지 보내왔습니다.
 - 일본 「그리스도우회 동경월회」에서 후원금 265,38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월 29일 / 종로 수도교회 청년신도회의 최희정 박정근님이 후원회를 찾아주시고
후원성금 125,740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월 31일 / 후원회 1월 산행모임이 있었습니다.
장기수 선생님과 후원회원을 34명이 함께 했고, 북한산 보현봉까지 한사람 빠짐없이 올랐고,
큰 탈 없이 정릉골로 내려왔습니다. 뒤풀이, 선생님 말씀듣기, 산행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산오르기전 가는 곳, 길, 쉼터를 알리지 못하여 회원들이 갈려서 산오르게 된 집행부 잘못이
지적되고 '말씀듣기' 시간이 짧게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다음 산행의 고칠 일로 평가되었습
니다.
 - 이른바 중부당사건, 사노맹, 전대협 등 조직사건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장창호, 최호경, 정언영, 정인미, 임명규, 심상득, 정경수, 이경섭 이철우, 한경임, 정경진,
최진섭, 조덕원, 이형두, 이성구, 전달수, 변의숙, 신선아, 임종호, 황인오, 조무하, 마윤종,
윤정환, 김현찬, 우진성, 함정희, 신동욱, 주병화, 황인욱, 이원배, 최상, 고한석, 김동훈,
장기표, 손병선, 노중선, 김표무, 임인출, 양홍관, 최종만, 김낙중, 백태웅, 박홍순, 김동관,
최현식, 정재효, 이진순, 이영희, 김경태, 이승미.
 - 심리, 증거채택, 증언 결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중, 구형고 선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구 형 | | | | |
| 심상득 10년 | 정연영 7년 | 임명규 10년 | 이성구 5년 | 이원배 5년 |
| 이강훈 10년 | 임인출 12년 | 정인미 5년 | 정경진 7년 | 임종호 5년 |
| 김표무 10년 | 이영지 5년 | 주병화 5년 | 황인욱 무기 | 이경섭 무기 |
| 한경임 8년 | 마윤종 10년 | 김경태 10년 | 이승미 7년 | 신동욱 12년 |
| 신금섭 사형 | 황인오 사형 | 양홍관 무기 | 윤정환 10년 | 최종만 12년 |
| 노중선 10년 | 변의숙 무기 | 최호경 사형 | 우진성 10년 | 김현찬 10년 |
| 이형두 12년 | 조덕원 15년 | 함정희 15년 | 김낙중 사형 | 장창호 무기 |
- | | | | | |
|-----------|---------------------|---------|-------------|--------|
| • 선 고 | | | | |
| 전재순 집유 | 송혜숙 집유 | 윤임현 집유 | 신선아 집유 | 전송임 집유 |
| 전달수 집유 | 이근희 3년 | 김동훈 2년 | 진용근 1년 | 조무하 집유 |
| 고한석 1년 6월 | 이영희 항소기각(징역1년 집유2년) | 이시영(시인) | 징역 8년 집유 2년 | |

■ 작년 12월에 이어 올 해에도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로부터 편지와 연하장이 보내져왔습니다.
고성화, 이성우, 손성표, 문광명, 이공순, 조영삼, 김병주, 박종열, 양희철, 장민섭, 서경원,
문익환, 남진현, 조봉수, 전기석, 유원호, 이수호

■ 양심수 석방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총력주간 소식

기 간 : 1993년 2월 8일~13일

일 정

- 2월 8일 : 총력주간 선포 및 기자회견—오전 8:30 '조계사'에서
석방과 복직 이유서 및 통계분석 설명. 오후 전교조 주관 공청회 개최
- 2월 9일 : 거리 홍보의 날(거리 음악제)
장기수 석방 탄원서 제출
- 2월 10일: 김영삼 차기 대통령 면담 요청
—불교, 천주교, 기독교 대표단
- 2월 11일: 단식의 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단식기도회 목요기도회 및 촛불행진
(대전, 대구, 전주 동시)
- 2월 12일: 불교인권위원회 주관-법회 및 거리홍보
- 2월 13일: 양심수 전원석방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시민의 밤

참가 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특 보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농성 소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2월 4일 기독교회관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날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전국교도소 양심수들도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가협 회원들의 농성 기간엔 거리홍보, 김추기경, 민주당 대표, 법무부, 민자당, 차기 대표통령을 방문하고 양심수 전원석방과 수배자 수배해제 군사 독재 정권에서의 모든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사면, 복권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가협조사 양심수현황과 2월 10일까지 민가협에 신고된 수배자, 사면·복권 대상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 명단은 총회보고서에 실려질 것입니다.)

1. 구속양심수

가. 6공화국 기간 구속자 누계

6,614명(하루평균 3.6명) — 5공기간 4,700명 하루평균 1.61명과 대조

나.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 총수 675명

학생	228명	농민	17명	노동자	166명	문화·예술	11명
노점상	4명	장기수	88명	교사	4명	재야·기타	124명
언론	1명	군인·전경	32명				

다. 법규별

국가보안법	339명	59.1%
노동관계법	133명	19.7%
폭력과 처벌에 관한 법	125명	18.5%
집시법	85명	13.0%
공무방해	57명	8.4%
화염병	35명	5.2%
기 타	21명	3.1%
미확인	15명	2.2%

라. 장기수 현황

연령별

70세 이상 12명 60~69세 43명 50~59세 15명 49세이하 18명

복역연수별

40년 이상 3명 35~39년 6명 30~34년 7명 20~29년 18명
20년 이하 54명

2. 수배자 현황 : 342명

재야 79명 군·경 14명 학생 112명 노동자 37명

3. 사면복권대상자 : 637명

교사 12명 재야 73명 학생 376명 노동자 239명
출판인 4명 기타 22명

■ 재판일정

성명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농성에 들어가며

이 추운 겨울 감옥의 양심수들이 단식이라는 절박한 방법으로, 양심수의 가족들 역시 고난의 싸움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고통이 머잖아 재회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임을 확신하며 투쟁을 시작한다.

6공정권은 집권 5년 동안 5공 7년간의 양심수 4,700명 보다 훨씬 많은 무려 6,000여명의 양심수를 양산했다. 우리가 민주사회로 나아가려는 이때 6공에서처럼 하루 평균 3.6명 꼴로 양심수를 만드는 야만적인 권력의 횡포는 이제 끝나야 한다.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숨통을 옥죄는 냉전의 산물 국가보안법 등 악법에 의하여, 무지막지한 공권력에 의해 구속된 군사통치시대의 희생자인 양심수는 마땅히 석방되어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당시 대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대사면을 약속하였고, 32년간의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문민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김영삼 차기 정권은 670명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는 것부터 그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34명의 장기수를 석방해야 한다. 43년째 구금되어 있는 김선명, 이종환 씨 등 세계 최고 장기구금의 기록은 바로 우리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역대 독재 정권하에 조작된 간첩사건으로 구속된 구미유학생 사건 관련자 등 모든 조작간첩 관련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5.3 부산동의대 사건 등 학생 양심수와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 투옥된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의 양심수는 석방되어야 한다.

사노맹 사건, 자민통 사건,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 조직사건 관련자들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직 결성의 자유, 사상의 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라 석방되어야 한다.

차가운 거리에서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많은 수배자들은 수배조치가 해제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군사독재에 대해 반정부 민주화투쟁을 한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정치적 수배조치 해제,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을 폐지하는 것을 시발로 김영삼 차기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민주개혁을 조속히 이행하길 촉구한다.

1993년 2월 4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763-2606)

■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심수 석방사업 적극지원
2. 상기부여 양심수 후원사업 (상기적 영치금 발송, 쇄자, 영치금 지원)
3. 시국시범 후원사업(비정기적 영치금 발송)
4. 시민국장기부여 양심수의 생계지원 생계터전 마련사업
(국보정 '민족의 집' 운영)
5. 상기부여 양심수, 석방자 등 민의원자와 지례 견언 추진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서울신탁은행 15701-89000531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양심수후원회)
농협 053-01-112692 (양심수후원회)



양심수 후원회

보내는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110-542)

받는이: